

코스피 2737.57 (-6.99)	코스닥 913.69 (+9.71)
금리 (미국 9년) 3.290 (+0.006)	환율 (원-달러) 1342.10 (+3.70)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25일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청약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겪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25일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뉴스1

## 'AI 시대' 총성 없는 전쟁

# 가전부터 반도체까지 삼성 '왕좌탈환' 사활

엔비디아, '삼성 HBM' 테스트 납품 기대감에 주가 8% 급등 AI 탑재 가전 경쟁도 불 붙어 AS도 인공지능 도입·서비스

인공지능(AI)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AI용 반도체인 HBM 생산을 선점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떠오르자 삼성전자의 주가가 5%이상 뛰어들기도 했다. 여기에 가전에도 앞다퉀 AI를 탑재하며 가전시장의 AI 도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일부터 22일까지 3거래일 만에 8.38% 급등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친 것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GTC 2024'에서 "삼성전자의 HBM3E를 현재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밝힌바 있다.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억 달러 수준에서 오는 2027년에는 330억 달러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HBM은 기존 D램을 겹겹이 쌓은 반도체로, 많이 쌓아 올릴수록 데이터 저장용량이 크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빨라지

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AI가 급부상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HBM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업계는 HBM이 시장 주도권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간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에 HBM을 납품받았다. 이에 삼성전자에 밀리던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1위로 우뚝서게 됐다. 하지만 이번 젠슨 황 CEO의 언급으로 삼성전자 제품도 사들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주도권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HBM 시장을 주도해 반도체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경계현 DS부문 사장은 주중에서 "메모리는 12나노급 32Gb DDR5 D램을 활용한 128GB 대용량 모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12단 적층 HBM 선행으로 HBM3-HBM3E 시장의 주도권을 찾을 계획"이라며 "또 D1c D램, 9세대 V낸드, HBM4 등과 같은 신공정을 최고의 경쟁력으로 개발해 다시 업계 선도하고 첨단공정 비중 확대, 제조 능력 극대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가전에도 앞다퉀 AI를 탑재하며 가전시장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oul.co.kr



## 장기모사체로 개인 맞춤형 치료시대 성큼

### 1. 오가노이드가 여는 미래

#### 2. 의료 패러다임 대변혁

만능 줄기세포로 미니 장기 구현 질병모델 통해 신약 안전성 확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이 실험실에서 키운 장과 간, 신장을 하나로 연결한 새로운 오가노이드(장기모사체) 모델을 만들었다. 사람이 입으로 약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되고 간에서 대사가 된 후 신장에서 배설이 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장과 간 신장이 연결된 오가노이드 모델은 약이 인체에서 어떻게 흡수되고 배설되는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물동태학(PK) 실험 모델로 활용된다. 동물실험이 가진 종간 차이라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오가노이드가 치료와 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뇌 오가노이드와 중앙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치매와 알츠하이머, 개인의 세포에서 분화된 오가노이드를 통해 나에게 맞는 약물과 치료법을 미리 찾는 맞춤형

치료 시대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안에 오가노이드 칩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 시대가 열리고, 향후 10년 안에 실제 손상된 장기를 새로운 장기로 교체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오가노이드, 어디까지 가능한가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류가 가진 오가노이드 기술은 이미 인간 몸 속에 있는 모든 장기유사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만능줄기세포를 활용해 뇌, 간, 폐, 심장, 위, 간, 췌장 등 모든 미니 장기를 구현하고, 모낭이나 눈물샘, 침샘, 피부와 같은 조직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는 세상이 열렸다.

오가노이드가 가져올 변화 가운데 가장 가시화된 것은 동물실험의 대체다. 인체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에 동물 실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결과를 낸다. 특히 신약 개발 가능성을 빠르게 타진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질병 모델을 통한 난치 질환 정복의 꿈도 가까워졌다. 미니 뇌와 중앙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을 알아내고 치료제 개발을 앞당

길 수 있다.

생명연이 만든 PK 실험 플랫폼처럼 오가노이드는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이미 활용된다. 앞으로 개인 맞춤형 모델 제작도 가능해진다.

대장암 환자의 암 조직을 그대로 꺼내 중앙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정상 조직들을 때내 장, 간, 신장 오가노이드를 만든다. 인체에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이 오가노이드에 먼저 투여하면 어떤 약물이 환자의 장기는 살리며 암세포만 죽이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2~3년 안에 이러한 오가노이드 칩을 활용해 환자에 맞는 치료제와 치료법을 찾는 맞춤형 치료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손미영 줄기세포융합연구센터장은 "머지않은 미래에 신약 개발 모델은 '오가노이드 병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될 것"이라며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 오가노이드 칩을 먼저 보내고, 병원에서는 이 칩을 통해 환자에 최적의 약 조합을 찾아내 맞춤형 치료 방식을 미리 구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4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 의대교수 무더기 사직... "증원 철회부터"

### 의정갈등 격화

전의교협, 외래진료 축소 강행 "정원배정 철회 없인 해결 불가"

전국 의과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현실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100명 가까운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단체인 전국외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외과교수비대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해 교수직을 던진다"라며 "책임은 맡은 환자 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과 소속 대학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고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방침을 밝혔지만, 의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서 제출을 관철했다. 이들은 "200명 증원"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19개



김창수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 총회장이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의료원에서 열린 전국외과대학 교수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학이 참여했다. 이밖에 일부 다른 의대도 교수들이 추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교수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수 전국외과대학교수협의회(전외교협) 회장도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서 제출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전북의 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 대학

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은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과,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정부의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실무 작업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의료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ihj@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윤, 한 총리에 "의료계 비롯 사회 각계와 긴밀 소통" 당부  
▲박지원 "여의도 목련 피는데 김포가 서 울됐다... 한동훈 거짓말쟁이" (사진 뉴스1)

▲한동훈, 26일 박근혜 대구 사저 예방... 보수표심 결집 '총력'  
▲김여정 "기사다, 김정은 만나고 싶다는 의향 전해 와"



▲외교부 "北김여정 담화, 가정 상황... 일본과 긴밀 협의중"  
▲눈시를 뿜힌 이명박 "천안함 46용사 희생 잊지 않을 것" (사진 뉴스1)